



2면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 개소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음 3월 2일)

제324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투기’ 프로젝트 본격 시동

〈전북에 투자할 기업〉

전북도가 전북에 투자할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전투기’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김관영 도지사는 20일 부산에서 개최된 한국화학공학회 CEO 포럼에 참석해 전북의 투자여건을 설명하고 기업 관계자와 네트워킹을 구축했다. 하루 전 LG화학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바로 부산에서 힘없이 이차 전지 등 화학 기업 유치전에 나선 것이다.

한국화학공학회는 1962년에 국내 화학 관련 기업들이 참여해 설립된 기구로 지난 19일 전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LG화학을 포함, GS칼텍스 SK가스 등 굴지의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화학분야는 이차전지 소재에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산업적 가치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분야이다.

화학공학회 CEO 포럼 참석

김 지사, 전북 투자여건 설명

기업 관계자와 네트워킹 구축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한국화학공학회 대표인 이수화학의 류승호 대표, LG화학, 롯데케미칼, GS칼텍스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을 위해 바뀌고 있는 전라북도의 투자환경과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새만금을 찾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유례없이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17업 1공무원 전담제, 환경단속 사전 예고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등의 정책 도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전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소개함으로써 참



20일 부산에서 열린 한국화학공학회 CEO 포럼에 참석한 김관영 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가 CEO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

또한 성일하이텍(주) 전력 공급 문제 해결 등 실제 사례를 들며 기업의 경영활동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행정을 펴고 있는 전북 도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관영 지사는 포럼에서 기업 대표들에게 “기업의 성공신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라북도가 바뀌고 있다.”며 “준비된 기회의 땅 전북에 투자해 함께 성공의 가도를 달리자”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전략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업종별 전문가 세미나,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수시로 기업 관계자를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등 기업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인간중심·도덕중심·지역중심을 추구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바른마음·바른생각·바른행동에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초대합니다.

구 분	모집인원	자 격 조 건
취재기자(본사)	0명	일간지 근무 경력자 우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지역취재기자(군산)	”	”
지역취재기자(완주)	”	”

▲ 접수기간 2023년 4월 28일까지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총무팀)

전주매일

“자랑스럽게 살지 못하더라도 부끄럽게 살지 말자” | 산민 한승헌 변호사 1주기

진안서 추모식... 군민 주도

“자랑스럽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부끄럽게 살지는 말자.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는 재판의 현장에서 나는 분노하고 개탄했다.” 이는 고 한승헌 변호사의 말이다.

지난해 4월 21일 별세한 산민(山民) 한승헌(1934~2022) 변호사의 1주기 추모식이 20일, 그의 고향인 진안에서 군민 주도로 열렸다.

이날 추모식은 재경진안군민회(회장 임종현), 재경진안군항우회(회장 윤석정), 안천초중고동창회(회장 박찬운), 안천면주민모임(대표 이정희 회장), 청주한씨진안군종친회(한필수) 등 5개 민간단체가 주도해 결성한 산민 한승헌 선생 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 주최·주관으로 열렸다.

산민 기념사업회장은 전라북도에도 향분부 총재이자 재경진안군항우회를 겸하고 있는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이 맡고 있다.

한필수 청주한씨진안군종친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추모식은 국민의례(이은경 아나운서), 분화·현화, 내빈소 한승헌 전 변호사 약력소개, 영상시청, 경과보고(이상화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기념사(윤석정 회장), 추모사(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서거석 교육감, 전춘성 군수, 김민규 군의회위원장), 회고사(장영달 우석대 명예회장, 황숙주



씨대 인권변호사로 불렸던 한승헌 변호사 1주기 추모식이 20일 진안군 마이산명인명품 문화관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식에서 서거석 교육감, 전춘성 진안군수, 김민규 진안군의회 의장, 산민 한승헌 선생 기념사업회 관계자들, 현지 주민 등이 참석했다.

전 순창군수, 황민주 전 전북도교육위원), 추모무(장인숙 전북대 교수), 추모가(이은희 전북대 교수), 추모사(김용택 시인), 기념촬영, 폐회선언(박찬운 안천초중고총동문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추모식에는 산민 배우자 김송자 여사와 그 가족을 비롯해 기념사업회

결성을 주도한 5개 민간단체 대표 5명, 진안군청·군의회·농협 등 진안지역 기관·사회 단체장, 진안지역 각 읍면 향우회장, 현지 주민 등 500명가량이 참석했다.

또한, 한중관 산음보증재단이사장, 이종민 전 전북대 교수 등 전북지역 산민 한승헌 지지도모임 회원 등도 추

모 대열에 참석했다.

고 한승헌 변호사는 1세대 인권변호사로 양심수 등을 변호하면서 독재와 맞서 싸웠다. 그는 감사원장을 지내며 바른 감사, 바른 나라라는 임무를 새로 제정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위상을 확보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소리축제, 새로운 전환기

조직위원장·집행위원장 임기 만료 따라 새로 선임

이번 축제에서 ‘소리 통한 상상·회복’ 강조할 듯

올해 제22회를 맞은 전주세계소리축제가 다가오는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새로운 조직위 구성 및 프로그램 다양화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전주세계소리축제를 이끌어 온 김한 조직위원장과 박재천 집행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돼 신임 이왕준 조직위원장과 김희선 집행위원장이 각각 선임됐으며, 지역 전문가 15명, 전국 단위 외부전문가 8명 등 새로운 조직위원 25명도 확정됐다. 이들은 대학, 언론, 예술, 국악, 명창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들이어서 전주세계소리축제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왕준 신임 조직위원장은 전북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의학박사를 마치고 현재 명지의료재단이사장, 한국의료향상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의료와 문화자유, 관소리, 국악 등 전통음악 분야에 탁월한 관심과 네트워크로 정평이 나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김희선 집행위원장은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하고, 국립국악원 운영자문위원과 국민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있으며, 특유의 소통과 협력, 탁월

한 리더십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 새로운 조직위는 이번 축제에 ‘국제적인 냉정과 전쟁, 평화의 분위기’에 ‘소리’를 통한 ‘상상’과 ‘회복’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가 전북의 ‘소리 문화’로 하나가 되길 염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주제 등은 새로 꾸려진 조직위를 포함한 전문가 자문 중이며, 5월 중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왕준 신임 조직위원장은 “소리는 전북인의 삶과 떼어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산으로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새로운 소리문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하면서,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새로운 도전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제22회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전통과 현대를 아울러 현대적 퓨전음악, 대중음악, 지역과 연계한 기획공연 등 시대적 분위기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여사를 품은 도시,
특별한 시간을 보내다!
군산여행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